



이강인 출격 가나전 필승카드 되나

이강인

손흥민·황희찬과 함께 가나전 공격 중책 맡을 듯 우루과이전 '맛보기' 넘어 본격 월드컵 누빌 준비

이강인(21·마요르카)과 황희찬(26·울버햄프턴)이 가나전에서 '중책'을 맡게 될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치른다.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겨 H조 공동 2위(승점 1)에 자리한 한국은 목표인 16강 진출을 위해 가나를 상대로 승점 3을 따내겠다는 각오다. 가나를 꺾어야 16강 진출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총력전'을 준비해야 한다. '마스크 투혼'을 펼치는 손흥민과 함께 가나전에선 황희찬(울버햄프턴)의 복귀도 기대해볼 만하다. 벤투 감독은 4년 내내 공을 들여온 '빌드업 축구'가 이날 빛을 발했다. 벤투 감독의 조지력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았다. 뒤로 물러난 채 롱볼로 기회를 노리는, 이른바 '뺑 축구'를 하지 않고 공을 계속 점유하면서 패스워크로 차근차근히 공을 노렸다. FIFA 기록에 따르면 전반전까지 한국의 점유율은 45%-42%로 우루과이에 앞섰다. 양 팀 점유율의 합을 100%로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의 산정 방식을 따르면 한국은 전반전 50.3%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축구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전반전 점유율 중 최고 수치다. '1승 제물'로 지목한 팀과 경기에서 때때로 공세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으나, 이번처럼 명실상부 강팀을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릭'도, '깜짝 카드'도 없었다. 벤투 감독은 평가전에서 자주 쓴 4-1-4-1 전술을 썼다. 정우영(알사드) 한 명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했다. 한국이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수비에 방점을 둔 '더블 볼란테(수비형 미드필더 2명 배치)'를 가동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벤투 감독은 늘 하던 공격적인 축구를 그대로 펼쳐 보였다. 벤투 감독은 플랜 B로 주목받던 스리백 전술도 쓰지 않았다. /연합뉴스

1차전을 치르기 전 벤투 감독이 손흥민의 몸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2차전을 앞두고도 황희찬의 훈련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황희찬이 빠른 속도의 달리기도 소화한 것으로 보아 짧은 시간이라도 가나전에 나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가나의 약점인 측면과 뒷공간을 공략할 때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골든 보이' 이강인은 2경기 연속 출격을 준비한다. 지난해 3월 일본과 평가전(0-3 패) 이후 이강인을 외면했던 벤투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그를 다시 찾았고, 우루과이전에서 후반 30분 교체로 투입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려 했다. 이강인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뛰었고,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으며 자신도 벤투 감독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맛보기'를 끝낸 이강인은 본격적으로 본선 무대를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밝은 얼굴로 주장인 손흥민과 짝을 맞춰 밸런스 훈련을 진행했다. 우루과이전 교체 멤버와 경기에서 나서지 않은 벤치 멤버 위주로 진행된 전일 훈련에서도 이강인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력을 발휘했다. 미니 게임에서 날카로운 슈트 감각을 과시했고, 훈련이 끝나고 그라운드에 남아 프리킥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간의 훈련과 직전 경기를 통해 이강인을 유심히 지켜본 벤투 감독이 2차전에서 그를 확실한 '조커'로 기용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연합뉴스

뚝심의 벤투 ... 한국 축구 새 이정표 '빌드업'

트릭 없이 늘 하던대로 우루과이전 공세적 경기 승점 1점 이상의 의미

승점 1을 수확하며 16강행 도전을 향한 밑거름을 쌓은 우루과이전은 한국 축구사의 이정표가 될 만한 경기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겼다. 이날 벤투 감독의 경기 내용에는 강팀을 상대로 승점 1을 따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 한국은 이날 우루과이(14위)를 상대로 시종일관 매우 공세적

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우루과이에는 한때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이상 현 파리 생제르맹)과 FC바르셀로나에서 역대 최강의 삼각편대를 구성했던 베테랑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가 버티고 있다. 우루과이는 차세대 특급 골잡이를 거론할 때 늘 첫 손에 꼽히는 다르빈 누녜스(리버풀)와 수아레스가 함께 이날 최전방에서 한국 골문을 노렸다. 벤투 감독이 4년 내내 공을 들여온 '빌드업 축구'가 이날 빛을 발했다. 벤투 감독의 조지력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았다. 뒤로 물러난 채 롱볼로 기회를 노리는, 이른바 '뺑 축구'를 하지 않고 공을 계속 점유하면서 패스워크로 차근차근히 공을 노렸다. FIFA 기록에 따르면 전반전까지 한국의 점유율은 45%-42%로 우루과이에 앞섰다. 양 팀 점유율의 합을 100%로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의 산정 방식을 따르면 한국은 전반전 50.3%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축구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전반전 점유율 중 최고 수치다. '1승 제물'로 지목한 팀과 경기에서 때때로 공세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으나, 이번처럼 명실상부 강팀을 상대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트릭'도, '깜짝 카드'도 없었다. 벤투 감독은 평가전에서 자주 쓴 4-1-4-1 전술을 썼다. 정우영(알사드) 한 명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했다. 한국이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수비에 방점을 둔 '더블 볼란테(수비형 미드필더 2명 배치)'를 가동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벤투 감독은 늘 하던 공격적인 축구를 그대로 펼쳐 보였다. 벤투 감독은 플랜 B로 주목받던 스리백 전술도 쓰지 않았다. /연합뉴스



벌써 ... 펠레와 비교되는 음바페

2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D조 프랑스와 덴마크 경기.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나, 측면 수비 약점·공격력 무시할 수 없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전을 펼치며 승점 1을 따내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시작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제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와의 일전을 준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 나선다. 가나는 1차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소속)를 앞세운 포르투갈에 2-3으로 져 현재 순위는 H조 4개 팀 중 최하위(승점 0)다. 상대가 호날두를 필두로 브루누 페르난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한 포르투갈이긴 했지만, 세 골을 허용한 수비에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벤투 감독이 참고할 부분도 분명해 보인다. 전반에 비교적 잘 유지되며 포르투갈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던 가나 수비 조직력은 후반 들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호날두가 터뜨린 포르투갈의 첫 골은 수비수 모하메드 살리수(사우샘프턴)의 파울에 따른 페널티킥으로 나왔으나 이후 두 골은 모두 역습 상황에서 페르난즈의 침투 패스에서 비롯됐다. 페르난즈의 패스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했고, 후반 33분 중앙 펠리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2분 뒤 하파엘 레양(AC 밀란)은 왼쪽에서 침착하게 마무리 지어 포르투갈은 순식간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측면 수비의 헐거움도 여러 차례 노출돼 한국으로선 마스크 투혼을 펼치는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돌파가 뛰어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반면 가나의 공격력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수비진에도 유럽 빅 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늘어난 포르투갈을 상대로 가나는 2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28분 모하메드 쿠두스(아약스)의 왼쪽 측면 크로스가 상대 발을 스친 뒤 앙드레 아유(알사드)의 슈트로 이어져 1-1 동점 골이 터졌다. 1-3이던 후반 44분엔 후반에서 한 번에 길게 올라온 공을 왼쪽 측면에서 바바 라만(레딩)이 연결한 뒤 부카리가 머리로 받아 넣어 만회 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동점 골의 발판을 놓은 쿠두스의 존재감은 돋보였다. 포르투갈전에서 2선 측면에 배치된 쿠두스는 2000년생으로, 운동 능력과 드리블, 중거리 슈트, 수비 가담 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 포지션으로 삼지만, 다양한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쳐 2019년부터 성인 대표로 뛰고 있는데, 생애 첫 월드컵 경기에서도 장점을 발휘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동점 골을 넣어 견재함을 뽐낸 주장 아유, 큰 활약을 보이진 못했으나 최전방에 나섰던 귀하 선수 이나키 윌리엄스(아틀레티 빌바오), 가나 최고의 스타 토마스 파티(아스널) 등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오늘의 월드컵	
28일(월)	※한국시간 기준
	카메룬 vs 세르비아 19:00
	대한민국 vs 가나 22:00
29일(화)	
	브라질 vs 스위스 01:00
	포르투갈 vs 우루과이 04:00

자료: FIFA

24세 되기 전 월드컵 통산 7골 3차전·16강전 득점 뎀 신기록

프랑스 '아트 사커'의 핵심 킬리안 음바페(24·파리 생제르맹)가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골잡이 대관식을 앞뒀다. 음바페는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덴마크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두 골을 몰아쳐 2-1 승리를 이끌고 프랑스를 가장 먼저 16강으로 인도했다. 세계의 시선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최정상급 골게터로 입지를 굳히는 음바페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음바페는 이날 오른쪽과 왼쪽 다리 허벅지로 두 골을 잇달아 넣어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음바페는 조별리그에서만 세 골을 보태 월드컵

통산 득점을 7골로 늘렸다. 또 A매치에서 31골을 터뜨려 프랑스의 위대한 중원 사령관 지내던 지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다만, 108경기에서 31골을 넣은 지단은 미드필더였고, 스트라이커인 음바페는 지단보다 40경기 이상 적은 61경기에서 31골을 휘둘러쳐 뛰어난 결정력을 뽐냈다는 데서 차이가 난다. 다음달 20일에 2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음바페는 아울러 '축구 황제' 펠레와 더불어 만 24세가 되기 전 월드컵에서 7골을 넣은 역사상 두 번째 선수 됐다. 펠레는 18세이던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 출전해 8강에서 1골, 4강에서 헤트릭, 결승에서 2골 등 6골을 넣었다. 이어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1골을 보태 24세가 되기 전 7골을 월드컵에서 기록했다. 음바페가 조별리그 3차전과 16강전에서도 골을 보태면 이제 펠레를 넘어 이 부문 최다골의 새 주인공이 된다. /연합뉴스